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김일수*

• 목 차 •

I. 머리말

II.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배경

1. 일제 침략 이후 동화사
2. 일본인의 달성군 침투
3. 1910년대 대구의 민족운동과 3·1운동

III.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1. 중앙학림의 3·1운동
2.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3. 동화사 지방학림 3·1운동의 현재
: 덕산정 동문시장과 국가보훈

IV. 맺음말

*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 인문창의학부 교수.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81-118.

한글요약

1919년 3월 30일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동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은 서울의 불교계 주도의 만세독립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운동은 일제강점 이후 불교계와 동화사 주지의 친일화 경향에 대한 불교계의 성찰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승려들이 동화사를 떠나 대구부내 덕산동 동문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군중들과 함께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독립을 ‘당연한 본무’로 간주하고, 만세독립운동에 대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만세를 부른’ 것으로 이해하면서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구의 3·1운동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시키고, 3·1운동이 전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은 대구의 3·1운동의 중간 시점에 발생하여 대구의 3·1운동을 증폭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민족운동에서 불교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였다. 곧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운동은 불교계 역시 식민지 민족운동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주제어

한일병합, 3·1운동, 중앙학림, 동화사 지방학림, 동문시장, 보현사, 심검당(尋劍堂),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

I. 머리말

한국은 1876년 타율적 개항에 이은 외세의 침탈 속에서도 계몽운동과 의병활동을 통해 자주적 역사를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병합’을 통해 강제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10년 ‘한일병합’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 큰 위기와 굴욕을 안겼지만,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민족적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갖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동화를 목표로 한 폭압적 무단정치 아래에서도 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그간 진행된 다양한 독립운동의 물줄기를 한 군데로 모아 3·1운동으로 폭발시키면서 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내세웠다.

3·1운동에서 불교계 또한 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19년 일본 도쿄(東京)에서의 2·8독립선언 이후 국내에서 움직임에 대해 불교계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으로 확대시키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독립운동이 펼쳐진 이래 1919년 5월까지 전국에서 들불처럼 만세독립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1919년 3월 30일 동화사 지방학림의 승려들이 보현사를 거점으로 하여 ‘덕산정동문시장’에서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독립운동사』 3권(1972)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3·1운동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3·1운동을 사건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사』(1973), 『대구시사』(1995)에서도 대구의 3·1운동에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발행의 대구시사에는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 사이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1991)에서 대구의 3·1운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의 대부분은 판결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구지역 불교계의 3·1운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뒤 한국 근대 대구지역의 사회변동과 연관시켜 3·1운동을 분석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었다.¹⁾ 이 글에서는 3월 8일과 3월 10일, 혜성단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앞선 학위 논문 성과를 반영하여 달성친목회의 상해 임정 지원 활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3·1운동을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연동시켜 분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불교계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조망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 2018년 연말에 대구지역의 3·1운동에 대해 학계의 독립운동 인식에 분석 경향을 반영하여 독립에 대한 인식 및 그에 기반한 3·1운동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 곧 3·1운동의 현상과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3·1운동 이전 독립에 대한 인식과 활동, 3·1운동 시기 독립에 대한 인식과 활동,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3·1운동이 민족운동에서 갖는 역사적 위치를 보다 구체화한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대구 불교계의 3·1운동, 곧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대구의 3·1운동뿐 아니라 1919년 3·1운동 전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3·1운동 연구를 확장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사실,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에 대한 소개는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논문 형태의 본격적 학술 연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에 비로소 최초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배경, 3·1운동 및 독립에 대한 인식, 3·1운동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화사 지방학림 3·1운동의 현재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1) 이윤갑, 「대구지역의 한말 일제초기 사회변동과 3·1운동」, 『계명사학』 17, 2006.11.

2)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II.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배경

1. 일제 침략 이후 동화사

동화사는 금산사, 범주사와 함께 범상종 3대 사찰의 하나로 손꼽힌다. 동화사에 따르면 동화사의 창건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493년 극달화상(極達和尚)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하였다. 그 뒤 832년(신라 흥덕왕 7)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하였다. 그때가 겨울임에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하였으므로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표(眞表) 율사에 게서 영심(永深)에게 전하였던 불간자(佛簡子)를 심지(心地)가 다시 받은 뒤 팔공산에 와서 불간자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세우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첨당 북쪽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동화사는 두 가지 설 가운데 심지의 중창을 실질적 창건으로 보고 있다.

고려에 들어서는 1036년(고려 정조 2)에 영통사, 송법사, 부인사 등과 함께 경·을을 시험하는 사찰로 지정되었다. 고려 문종 때에는 원천 법천사의 지선국가(智先國師)를 배출한 사찰이었다. 1190년(고려 명종 20)에는 보조국사 지눌의 중창이 이루어졌고, 1294년(충렬왕 20)에 국사 홍진이 중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65년(세종 10)에 금당을 중건하고, 1606년(선조 39)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중창하였으며, 이어 학인이 대웅전을 건립하였다. 특히, 동화사는 임진왜란 때 유정이 영남도총섭으로서 승군(僧軍)을 지휘한 곳이며, 서사원(徐思遠)이 격문을 지어 많은 의병들을 모집해 훈련시키는 등 일본과의 전쟁에서 주요한 근거지가 된 곳이었다. 그러나 한말·일제시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사찰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을 무단통치를 통해 식민지배하는 가운데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로 7개조의 사찰령을 제정·반포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한

국의 불교를 단일종파로 만들어 총독의 통제 아래 불교를 억압하려는 식민 종교정책이었다.

사찰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조에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2조에 ‘사찰의 기지(基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전법(傳法), 포교(布教), 법요집행(法要執行)과 승니 지주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한국 사상의 맥을 이루고 있는 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총독부 아래 전체 사찰을 통제하고, 종교 활동까지 철저히 억압하고자 하는 왜곡된 종교정책이었다. 3조에는 ‘사찰의 본·말 관계 승규법과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찰의 운영을 총독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제5조에는 사찰의 재산을 총독부의 허가 아래 두고자 하였다. 사찰령의 마지막 조항인 7조에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 불교를 총독부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8일에는 사찰령의 세부 사항을 담은 전문 8조의 사찰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주로 사찰령 4조의 ‘사찰에는 주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의 세부 사항으로 주지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사찰령시행세칙 2조에는 전국 30여 개 사찰을 명시하고, 동 사찰의 주지는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경북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고운사, 기림사, 김룡사, 은해사 등 5개 사찰이 포함되어 있었다.³⁾ 30개 사찰 이외의 경우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일제는 사찰령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구분하였다.⁴⁾ 30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 아래 주지로 취임하여 본말사

3) 봉은사, 봉선사, 법주사, 위봉사, 대흥사, 송광사, 통도사, 패엽사, 영명사, 보현사, 유점사, 석왕사, 용주사, 전등사, 마곡사, 보석사, 백양사, 선암사, 해인사, 범어사, 성불사, 법흥사, 건봉사, 월정사, 귀주사 등이었다.

법을 통해 각 말사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동화사의 경우 1912년 10월 4일 마곡사와 은혜사와 함께 총독의 인가를 받았다.⁵⁾ 이때 동화사의 주지는 1911년 12월 7일 주지로 취임한 김남파(金南坡)였다. 그는 사찰령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임기의 주지를 1915년 3월 6일, 1918년 8월 8일에 걸쳐 총독 인가를 받으면서 지냈고, 1919년 12월 25일에 입적하였다.⁶⁾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을 겪고 난 뒤인 1919년 연말에 입적하였던 것이다.

1915년 용주사 주지 강대련이 주도하는 가운데 30본산연합제규(三十本山聯合制規)가 제정되었다. 이는 30본산에서 강학포교에 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 진언종(眞言宗)의 예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1915년 1월 16일에 30본산연합제규를 통해 30본산연합사무소가 조직되고, 같은 해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1922년 1월까지 불교계의 비상시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 및 사법은 조선총독 정치의 산물이었듯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30본산연합사무소도 식민지 종교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단체로 평가받았다. 이후 30본산연합사무소는 1922년 5월 27일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으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해방까지 존속하였다.

동화사 주지 김남파는 30본산연합제규가 제정되던 시기를 전후해서 불교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12월 30본산 주지들이 예년회(例年會)를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를 발행하는 매일신보사의 초청으로 매일신보사를 방문할 때, 여타 주지들과 함께 참석하였다.⁷⁾ 그는 1915년 3월 1일 30본산연합사무소에 대한 총독 인가가 있는 뒤 3월 12일에 구성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상치원으로

4) 1924년 11월 20일 조선총독부는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래 30본산에서 화엄사를 포함한 31본제도로 변경하였다.

5) 이능화, 『朝鮮佛敎通史』上, 서울 신문관, 1918, pp.628-674.

6) 임혜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p.679.

7) <매일신보> 1914년 12월 27일, 「삼십본산주지래사」.

선출된 이래 1916년의 1기, 1918년의 4기의 상치원을 역임하였다. 또 1917년의 3기 때는 감사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⁸⁾ 그 가운데 1918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각황사에서 열린 삼십본산주지 총회에서 김남과는 이해강, 라청호, 이설월, 송종현, 강애련, 김용복 등과 함께 새로이 상치원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김구하, 감사원은 김경운, 지식담, 이지영 등으로 선출되었다.⁹⁾ 또 총회에서는 지난 년도 사찰의 현황 보고, 승도(僧徒)교육 발전, 여승 교육 등에 논의가 있었다.

1915년 4월에는 같은 해 1월에 열린 30본산 주지 총회에서 조선불교중앙학림을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학림 설립 위원을 선출하였다. 동화사 주지 김남과는 백양사 주지 김유응, 범어사 주지 오성월, 송광사주지 이설월, 통도사 주지 김구하, 석왕사 주지 김윤하, 봉은사 주지 라청호 등과 함께 상치원(常置員)으로 선출되었다. 용주사 주지 강대련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¹⁰⁾

그러나 김남과는 1914년 11월 이회광이 주도하여 만든 친일불교단체 불교진흥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¹⁾ 불교진흥회는 취지서에서 “오직 우리 불교는 즉 보배로운 배(寶筏)이며 밝은 햇불(朗炬)이며 신령한 약이로다. 대저 위로는 천황의 통치를 보필하며 아래로는 백성의 복을 도모하는 자가 어찌 불교를 진흥하여 우리 동포로 하여금 모두가 불교에 귀의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불교진흥회가 발기하는 까닭이다”라고 밝힌 것과 같이 친일 성향의 불교단체였다. 또한 김남과는 1917년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일본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일본시찰단은 당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위원장 김구하가 추진한 것이었고,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불교계 인사들

8)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3월 12일, 1916년 2월 2일, 1917년 1월 23일, 1918년 1월 18일,

9) <매일신보> 1918년 1월 8일, 「본산주지 총회」.

10) <매일신보> 1915년 4월 3일, 「불교중학 설립」.

11) 『불교진흥회월보』 제1호, 1915년 3월, pp.39-40.

을 일본 통치에 순응시키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것이었다.¹²⁾

이제는 동화사와 동화사의 주지 김남파의 중앙 활동 외에 지역 활동을 살펴보자. 동화사는 1911년 남산동의 아미산에 동화사의 포교당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문에도 포교당이라 적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나 포교당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1912년 <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포교당이 건립된 때는 1911년의 여름 무렵이고, 1912년에 동쪽과 서쪽에 건물을 더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 이름을 보현사(普賢寺)로 밝히고 있다.¹³⁾

이처럼 동화사는 대구부에서도 대표적 한국인 거주지인 남산동에 보현사라는 포교당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왕의 사찰을 없애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동화사의 말사에 해당하는 사찰로서, 사찰을 폐지하는 권한은 본사의 주지에게 있었다. 동화사의 경우 주지 김남파의 권한으로 말사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먼저, 1915년 10월 25일에 경상북도 경산군 대흥사(大興寺)가 동화사 주지의 이름으로 폐지 신청된 이래 대흥사의 폐지가 인가되었다.¹⁴⁾ 다음 1917년 6월 20일부로 경상북도 달성군 유가면 대견사(大見寺)의 폐지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인가되었다.¹⁵⁾ 물론, 동화사 주지의 이름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가운데 대견사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대견사는 신라하대 초기인 ‘헌덕왕 때(809~825)’에 창건된 신라 천년고찰이었다. 대견사는 국가나 지방군현의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등을 물리치는 기도처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던 듯하다. 대견사의 창건은 전통적인 산악신앙과 불교가 습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국가의 재앙을 물리치는 기도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찰이다. 대견사는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교종 사찰로 기록되어 있

12) 일본시찰단의 구성원은 통도사 김구하, 해인사 이회광, 용주사 강대련, 봉은사 라청호, 위봉사 광법경, 범어사 명적학교 교장 김용곡, 전등사 이지영, 신륵사 김상숙, 조선불교총보 기자 권상노, 조선총독부 촉탁 加藤灌覺 등이었다.

13) <매일신보> 1912년 2월 7일, 「대구래신」

14)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10월 27일.

15) 『조선총독부 관보』, 1917년 6월 23일.

다. 뒤이어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현풍과 비슬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폐사되었다가 633년(인조 11)에 두 차례 중창되면서 번창했다. 또 18세기 전반에 폐사되었다가, 1900년(광무 4) 대한제국 황실의 원당으로 중창되었다.¹⁶⁾ 그러다 1917년 대건사의 본사인 동화사, 동화사의 주지 김남파의 이름으로 폐사되었던 것이다.¹⁷⁾

동화사에 의해 두 사찰이 폐지되던 그 사이 시기인 1916년 10월 23일에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장관 스즈키(鈴木)가 동화사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스즈키는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해야 할 한국불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¹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른바 ‘총독정치 보익’과 ‘국가의 보익’에 부합하는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곧 불교가 단지 종교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긴밀한 관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의 친일 어용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일제는 한국불교의 통제·억압하면서, 식민통치의 정책적 차원에서 불교를 운영하려 하였다. 또한 동화사의 주지 김남파도 불교의 친일화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한국불교의 왜곡화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 의식이 3·1운동을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동화사의 3·1운동 전개와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인의 달성군 침투

동화사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도

16) 정동락, 「비슬산 대건사의 역사적 변천 연구」, 『민족문화논총』 62, 2016, pp.345-371.

17) 대건사는 2010년부터 달성군이 추진한 복원 과정에서 2014년 3월 1일 개산식(開山式)을 열고 정식사찰로 재등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8) <매일신보> 1916년 10월 29일, 「경북장관과 승려」.

학동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공산면과 인접한 행정구역은 해안면이다. 이 두 곳을 합쳐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팔공산 일원과 대구비행장을 포함한 동촌 일원이다. 개항이후 일제의 한국 침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러일전쟁 이후 경부선 부설을 계기로 대구에 일본인의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팔공산 아래 해안면 일대에 일본인의 침투 역시 가시화되었다. 그에 따라 외세의 침탈이라는 거대 국면을 맞지 않을 듯 이곳에서도 일제의 침탈에 따른 민족적 위기감을 직·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팔공산 아래 해안면에 침투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살펴보자. 이곳에 일본인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 무렵 군마겐(郡馬縣) 출신의 시부자와 슈조(澁澤周藏)과 야마자키겐(山崎縣) 출신의 사이토 야스오(齊藤安雄)가 함께 해안면 검사동에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일본인 이주가 시작되어 1910년에 3백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¹⁹⁾ 일본인의 농업은 과수, 담배, 야채 재배에 집중되었다. 과수는 사과, 복숭아 등이 주요 품목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과가 단연 중심이었다. 사과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품종을 달리하며 시장에 출하되었다. 야채는 오이, 가지, 후추, 양배추, 토마토 등이 재배되었는데, 이들 품종은 온상 속성 재배에 의해 시장에 출하되었다. 또 가을에는 파와 배추가 시장에 출하되었다. 동촌에서 재배되는 야채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시장으로 출하될 정도였다.²⁰⁾ 이처럼 일본인이 침투한 이곳은 일본인의 거주지가 형성된 동촌으로 더 잘려져 있다.

동촌에 대표적 일본인의 사례를 조선부식농원을 통해 보면, 1910년 11월 30일 달성군 해안면 검사동에 조선부식농원이 설립되었다. 조선부식농원의 설립은 일본 오사카(大阪) 범애부식회(汎愛扶植會)의 창설자인 가지마(加島敏郎)가 주도하였다.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조선부식농원은 ‘(일본=편집자)국민교육을 받은 청년 남녀와

19) 三輪如鐵, 『증보개정 대구일만』, 1910 참조.

20) 대구부교육회, 『대구독본』, 1936, pp.14-16.

조선인 고아·빈아를 수용하여 농업교육과 실무교육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자립생활의 건설한 농민을 양성'한다는 것을 명목상 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부식농원의 농장은 검사동, 방촌동, 입석동에 걸쳐 있었다. 농장 한 가운데 경주가도가 지나가고 있었다. 1914년 6월 재단법인 인가 때 조선부식농원의 주요 구성원들은 이사 카시마(加島敏郎), 평의원 이노우에(井上孝哉), 이와세(岩瀬靜), 혼다(本田幸介), 이진호(李軫鎬), 오하라(小原新三), 오즈카(大塚常三郎), 와타나베(渡邊暢), 구보타(窪田靜太郎), 스즈모토(鈴木穆) 등 10명, 그리고 고문 2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부식농원의 유지는 농장 수입 지대, 일반 기부금 또는 조선총독부와 도지방비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일본에서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기부받기도 하였다. 1923년부터 기원절 때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사회사업 장려 명목으로 하사금을 받았다. 재단법인 경북회로부터 1925년과 1926년에 1천 원의 농원 조성금을 받았고, 1929년에는 종신 연금 3백 원을 장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조선부식농원의 주요 사업은 구제, 농업, 인보(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움. 또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단체). 자영, 식립 등 5분야였다.

조선부식농원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수용되어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중 인보 사업을 보면, 1923년부터 조선부식농원이 소재한 해안면의 청년들로 청년단을 조직하고, 청년단은 농원으로부터 전 1반보, 연 1반보를 무료로 대부받아 공동경작을 실행하였다. 1940년엔 농원 내에 야학부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풍속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농업을 매개로 일본인의 '자애'를 조선인에게 '보급'케 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조선 지배를 수용케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부식농원은 일본 농업이민을 적극 수용하였다. 일본 범애부식회를 비롯하여 일반인의 이주도 적극 수용하였다. 조선부식농원이 선호하는

일본 농업 이민은 20세 이상의 남녀 청년들, 기혼의 남성 청년 등이었다.

조선부식농원은 동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본 농업 이민을 받아들였다. 곧 동척과의 계약을 통해 동척 소유의 토지를 장기 상환 방식으로 토지를 대여 받았던 것이다. 한 가정 당 2정보의 토지를 대여하였는데, 그 중 1정보는 논, 1정보는 밭이었다. 여기에 수도, 소맥, 육도, 땅콩, 파 등을 경작하였다. 그리고 부업으로 양계와 양잠이 권장되었다.

이처럼 공산면과 인근한 해안면이 조선부식농원의 조성과 함께 일본인 거주지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일본인의 침탈에 따른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1910년대 대구의 민족운동과 3·1운동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한 시기에 팔공산 일원과 대구지역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구지역 민족운동의 전개는 일제의 한국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이루려는 의지의 적극적 표현이었다.

1) 팔공산의 의병운동

1907년 정미7조약 체결에 따른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북지역 의병진영 가운데 산남의진은 더욱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대한제국의 대구 남영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군대해산을 계기로 산남의진에 들어간 우재룡은 의병장 정용기가 강원도로 이동하던 중 일본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정용기를 경산군 하양에서 구출하려다 실패하였다. 이에 최세운이 의병장으로 추대되는 것을 계기로 의병진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재룡은 팔공산을 본거지로 하는 영천 서부지역의 의병 책임자가 되는 동시에 의병진영의 군사훈련을 책임지는 연습장이 되었다. 우재룡은 1909년 일본군에게 체포된 뒤 9월 14일에 내란죄 혐의

를 받으면서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병운동을 잘못된 불온 행동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나는 일찍부터 남선 의병대장 정용기의 의제이다. 의형과 맹서하기를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 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의형이 순국하였으니 사상만은 변경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²¹⁾

2) 안일암의 달성친목회의 재건

1913년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현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안일암에서 시회(詩會)를 가장하여 ‘한일병합’과 함께 해산되었던 달성친목회를 재건하고, 강유원간친회(講遊園懇親會)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재건 달성친목회는 기왕의 달성친목회 회원, 대구·달성·성주·왜관 등 지역 지주 및 상인자본가와 신지식층이 주축이 된 결사였다. 강유원간친회는 경남북 지주와 자본가들이 대거 포함된 단체로서 자본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건 달성친목회와 강유원간친회는 계몽운동적인 성격을 계승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국권회복운동을 펼치고자 하였다.²²⁾

당시 안일암의 주지는 백용성(白龍星)이었다.²³⁾ 여하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 불교의 수행 공간이 독립운동의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시사점을 갖게 한다. 특히, 달성친목회의 재건을 주도했던 서상일 등은 통도사에서 수도 생활을 할 정도로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는 향후 민족운동 연구에서 불교계의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광복회

21)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22) 김일수, 「1910년대 달성친목회의 민족운동」, 『한국학논집』 45, 2011.12.

23) 근대의 고승이자 독립운동가인 白龍成(1864~1940)과는 동명이인이다.

1915년 달성공원에서 비밀리에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광복회는 의병전쟁 노선을 계승하여 독립전쟁론을 펼쳤다. 북벌주의를 청산하고 공화정을 주장하였다. 광복회 가운데 우재룡을 중심으로 보면, 우재룡은 같은 해 12월 경북 경주에서 권영만과 함께 우편마차를 공격해 세금 8천 7백원을 탈취한 이른바 ‘경북우편마차암습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우재룡은 1918년 1월 24일 김한중(金漢鐘)과 장두환(張斗煥)으로 하여금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케 한 박상진과 채기중이 체포될 때까지 국내와 만주를 오가며 활동하였다. 중국 만주에서 주진수(朱鎭洙), 양재훈(梁在勳), 손일민(孫一民), 이홍주(李洪珠) 등과 연락 관계를 맺고 서간도의 부민단(扶民團)과 신흥무관학교를 광복회(단)와 연결시키는 활동을 벌였다. 또 광복회의 충청도 지부장인 김한중도 우재룡의 지시에 따라 독립을 위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회고하였다. 1918년 8월부터 주요 구성원이 일제 관헌에 체포되면서 광복회의 활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우재룡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 만주로 탈출해 탄압을 피하고, 국외에서 활동 재개를 모색하였다.²⁴⁾

4) 대구권총사건(독립운동자금 모집 운동)

1916년 광복회 활동과 연관되면서도 독자적 독립운동으로 소위 대구권총사건이 발생하였다. 1915년 11월 무렵 김진우는 정운일, 최병규 등과 함께 대구의 부호들인 정재학(鄭在學)·이장우(李章雨)·서우순(徐祐淳) 등에게 각각 5만원, 2만원, 3만원을 독립자금으로 내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부호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 서우순의 사위인 김진만이 장인의 현금이 서우순의 첩 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1916년 8월 김진만과 김진우는 정운일의 집에 최병규, 최준명, 이시영, 김재열, 권국필, 임병하, 서

24) 김일수, 「대한제국 군인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재룡」,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 대구광역시(대구문화재단), pp.118-127.

우순의 아들인 서상준 등과 함께 모여 눈물쟁이 영감이란 별명을 가진 서우순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거사일로 잡은 1916년 9월 4일 김진만 형제는 정운일, 최병규 등과 함께 서우순의 첩집의 담을 넘어 서우순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방문에 놀라 지른 서우순의 비명소리에 집사 우도길이 달려오자 정운일 일행은 총을 쏘면서 달아났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 일제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애국단사건’, ‘대구권총사건’으로 불리어졌다. 1917년 8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김진우는 징역 12년, 김진만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대구 부호들의 협조 거부로 실패하였고, 그 대가로 영광 아닌 치욕스런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⁵⁾

5) 대구 3·1운동

대구에서 발생한 만세독립운동. 3월 8일의 서문밖 시장과 3월 10일의 덕산정 시장에서 두 차례 만세독립운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구 인근지역을 비롯해 경북 각 지역에 만세독립운동을 파급시켜 민족독립운동을 고조시켰다.²⁶⁾

1919년 2월 16일에 김규식(金奎植)의 부인 김순애(金順愛)와 질녀 김마리아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대구에 도착하여 계성학교(啓聖學校)의 교사인 백남채(白南採)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해 협의하였고, 그 뒤 백남채는 당시 남성정교회 목사이면서 계성학교 교사인 이만집(李萬執)과 동교 교사 김영서(金永瑞), 김태식(金台植) 등과 독립운동을 모의하였다. 그즈음 2월 24일 민족대표 33인으로서 경상도의 연락을 책

25) 김일수, 「김일식 일가의 독립운동과 국가건설운동」, 『역사연구』 26호, 2014.

26) 대구의 3·1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발표되어 있다. 이윤갑, 「대구지역의 한말·일제초기 사회변동과 3·1운동」, 『계명사학』 17, 2006.11. ;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임 맡았던 이갑성(李甲成)이 이만집을 만나 만세독립운동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 뒤 3월 1일에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6백매를 전달받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 이용상(李容祥)은 이만집에게 전했다. 이만집은 다시 동교회 장로 김태련(金台鍊)과 계성학교 교사 김영서를 만났고, 그 뒤 신동교회 목사 정재순, 장로 정광순 및 계성학교 교사 백남채, 최상원, 권의운, 최경학 등과 함께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후 교계 인사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참여 폭을 넓혀 나갔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위운동에 참여케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계성학교 교사들은 동교의 학생 대표 심문태(沈文泰), 김삼도(金三道), 정원조(鄭元祚), 박태현(朴泰鉉), 이영식(李永植), 김재범(金在範) 등을 모아서 학생 동원과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3월 5일에 계성학교 교사 최상원은 자신이 하숙하고 있던 대남여관에서 그 집에 아들 허범(許範)에게 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허범은 대구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생이었다. 허범은 친구 신현욱(申鉉旭)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하여 대구고등보통학교의 백기만(白基萬), 하운실(河允實), 김수천(金洙千), 김재소(金在炤), 박노일(朴魯日) 등이 시위운동에 참가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경산 출신이면서 평양 숭실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김무생(金武生)이 대구로 내려와 대구에서 만세독립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곧 김무생은 3월 6일 평양을 출발하여 서울을 경유하여 7일에 경북 김천에 도착하였다. 김천에서 예수교 전도원인 박제원과 함께 대구의 신명여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임봉선(林鳳仙)을 만나 서울 및 평양에서의 여학생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뒤 그는 대남여관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만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동시에 대구고보생 허범은 신명여학교 교사 이재인(李在寅)을 찾아가 만세운동을 관해 협의하고 신명여학교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또한 성경학교(聖經學校)에도 만세운동 계획이 전달되었다.²⁷⁾

그러나 이렇듯 대구에서의 만세독립운동 계획이 종교계와 학교를 중심으로 착착 진행되던 중 3월 3일 천도교 대구교구장이면서 달성친목회의 회원으로서 대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홍주일(洪宙一)이 일제의 만세운동에 대비한 예방차원에서 예비 검속되었다. 또 3월 8일 시위 당일에 백남채가 역시 예비 검속되었다. 이로써 시위운동을 추진하던 지도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1919년 3월 6일 남성정교회 장로 김태련은 이갑성에서 이만집으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자신의 집에서 등사관을 이용하여 등사하고 ‘대한 독립’이라고 쓴 큰 기와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에 준비하였다. 그리고 계성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시위운동에 쓰일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계성학교 측에서 정원조를 대구고등보통학교에 파견하여 시위 일시와 장소가 3월 8일 오후 3시 서문 밖 시장(큰장)임을 확인시켰고, 신명여학교와 성경학교에도 이미 전달되었다.

3월 8일 시위운동이 있기 전에 대한독립만세 또는 태극기에 독립만세라고 쓰인 뼈라가 도청 정문을 비롯한 대구부내 곳곳에 붙여졌다. 그리고 시위운동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만집, 김태련 등은 시위 준비물을 감춘 채 교회 관련 인사들과 함께 장꾼 속에 끼여 장터로 들어와 학생들을 기다렸다. 장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성경학교 학생들은 시장주변에 숨어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 계성학교의 전교생 약 1백여 명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처럼 각개별로 흩어져 시장주변에 모여 들었고, 신명여학교 학생 50여명은 교문을 나서 시장 입구 방아치 골목에 숨어 있었고, 성경학교 학생 20여명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대구고등보통학교의 약 2백여 명의 학생들은 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본군 헌병기마대의 저지선을

27) 「이만집 외 74인 대구지방법원판결문」(1919.4.18.) ; 「이만집 외 17인 대구지방법원판결문」(1919.7.24.).

뚝고 시장 가까이에 있는 즐버드나무 거리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계성학교 학생들이 가세해 일본군 헌병기마대의 전열을 무너뜨렸다. 이때를 계기로 하여 순식간에 학생들이 시장 안으로 몰려들었다.

학생들은 쌀가마니를 포개어 임시 강단을 만들었고, 이만집과 김태련이 그 위에 올랐다. 이때 군중은 학생을 포함하여 약 7, 8백여 명이었다. 김태련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만집이 “지금은 조선 독립의 시기로서 각자가 독립을 희망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자연히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립 만세를 고창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행한 후 만세 삼창을 선창하였다. 만세 삼창 후 시위 군중들은 시장을 벗어나 본정에서 경정으로, 경정에서 다시 동성로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행진 중 강학봉의 인술을 받은 약 30여명의 제화공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신명여학교 학생들도 대열에 계속 참여하였다.

동성로에 위치한 달성군청에 이르자 5, 6대의 기관총과 착검한 소총으로 무장한 대구 주둔 보병 제80연대의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본 헌병경찰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무자비한 진압을 행한 결과 시위대는 해산되었다. 그 가운데 김태련이 독립선언서를 군중에게 배포하다 일경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자 그의 아들 김용해(金溶海)가 달려들기도 했다. 그 뒤 김용해는 시위 도중 구타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 시위와 관련하여 157명을 구속하였고 그 가운데 67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²⁸⁾ 한편, 3월 8일 대구농림학교 학생들은 만세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교문을 나서다가 저지당하여 기숙사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세독립운동의 주축 학교인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등 세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다.

대구에서의 만세독립운동은 3월 10일 덕산정 시장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 시위 하루 전인 3월 9일에 계성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큰장 부근의 달

28)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2.

성공원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시위 계획이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시위운동은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박남준(朴南俊), 김재소(金在炤)와 계성학교 학생 박태현(朴泰鉉), 박성용(朴聖容) 등이 지방민 김재병(金在炳), 이덕주(李德周), 김치운(金致雲), 김윤덕(金潤德), 서상철(徐相喆) 등과 협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 4시 무렵 장꾼으로 가장한 시위 지도부가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 약 2백여 명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미 3월 8일 시위로 인해 시위운동에 대비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 만세운동은 이내 진압되었다. 이 시위로 인하여 65명이 구속되었으며 재판에 통해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9명이었다.

대구만세독립운동의 영향으로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는 1919년 3월 24일까지 동맹휴학 투쟁이 벌어졌으며 5월 20일에야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만세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계성학교의 김수길(金壽吉)이 동교의 허성도(許聖徒), 이명건(李命健, 이여성) 등과 목사 최재화(崔載華)와 함께 혜성단(慧星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들 가운데 허성도와 김수길은 영덕과 김천에서 각각 만세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최재화는 이명건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세력과 연계하여 민족운동을 벌였다. 곧 대구에서의 3·1만세독립운동이 민족독립운동의 심화시켰던 것이다.

Ⅲ.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1. 중앙학림의 3·1운동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저항은 1910년 10월 해인사 주지 이회광에 의해 추진된 조동종맹약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공권력

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원종(圓宗)이 일본 조동종의 지원을 받아 일제 당국에 승인을 시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 불교의 자존심을 팽개친 비굴한 조약이라는 비판이었고, 호남지역 불교계에서 제기되었다.²⁹⁾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제종 출범 운동이 나타났다. 일제의 탄압으로 임제종 출범이 좌절되었으나 사찰령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노력은 3·1운동으로 확대 계승되었다.

1919년 1월말 한용운은 천도교의 최린을 만나 독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용운은 최린과 함께 시국에 대해 논의하던 중 식민지에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때를 기회로 삼아 독립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하였다.³⁰⁾ 2월 15일 무렵 한용운은 오세창을 만나 최린과 나누었던 의견에 일치점을 보았다. 2월 20일 무렵에 다시 최린을 만나 독립운동의 실행 방법을 논의하고, 비폭력에 동의하였다. 그즈음 한용운은 최린을 통해 기독교의 이승훈은 만나 독립운동에 뜻을 함께 하였다. 1919년 2월 28일 낮에 한용운은 최린의 집에서 이승훈을 만나 같은 날 저녁에 손병희의 집에서 동지들이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손병희의 집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용운은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파고다공원으로 제안하였다.

한용운은 이승훈을 만난 시점에서 해인사 승려로서 서울에 거주하던 백용성(白龍成)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동인의 동의를 받아 민족대표에 포함시켰다. 이 때 한용운은 백용성에게 “일본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독립의 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은 독립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용운은 3·1운동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29)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7호, 2017, pp.72-74. ; 김동운,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경주사학』 2, 1983, pp.96-98.

30) 이병현, 『3·1운동비사』 중 「한용운선생의 취조서」,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pp.602-620. 민족대표 33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 취조서를 참고하였다.

그는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면 결코 남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니, 언제까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지내기만 하겠느냐며, 정의와 인도로서 조선독립을 회복하여 역사를 다시 빛낼 것이다.”라며 독립에 대한 인식을 일제의 재판부에서 드러냈다.³¹⁾ 또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조선 독립의 서」로 작성하였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²⁾ 이 글은 해방 후인 1947년 4월에 잡지 <신천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략)... 따라서, 위압적인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 ...(중략) ... 다행인지 불행인지 18세기 이후의 국가주의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략)... 그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서양의 독일이요, 동양의 일본이다. ...(중략)...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하고 2천만 민중을 노예로 취급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선을 병합함이 동양 평화를 위함이요, 조선 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략)... 각 민족의 독립 자결은 자존성의 본능이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이 찬동하는 바로서 전 인류의 앞날에 올 행복의 근원이다. 누가 이를 억제하고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

이처럼 한용운은 자신의 독립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한용운은 이러한 인식과 의지에 따라 3·1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과 인연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용운은 2월 하순 범어사를 방문하여 범어사 주지 오성월을 비롯해 이담해, 오리산 등을 만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고 전해진다.³³⁾ 또한 한용운은 유교계의 참가를 위해

31) <매일신보> 1920년 9월 25일, 「손병희 외 47인 공수불수리 사건」.

32) 「조선 독립의 서(한용운선생 옥중기)」, 『신천지』 1947년 3·4월호(통권 14호, 제2권 제3호), 1947.4.1.

33)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3·1운동의 지방 확산과정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 1983. p.99.

곽중석을 만났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³⁴⁾

한용운은 만세독립운동 하루 전날 밤 최린을 통해 이종일로부터 독립선언서 3천 장을 받아 자신이 거처하는 유심사(唯心寺)에서 중앙학림의 승려들을 불러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 만남은 손병희의 집에서 있었던 3·1운동 지도부의 만남 이후에 이루어졌다. 한용운과 중앙학림과의 관계는 중앙학림 내에 만들어져 있던 유심회와 연관되었다. 유심회는 1918년 늦가을 무렵 한용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국 불교의 일본 불교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이 자리에는 중앙학림의 학생 김규현, 김범윤, 오한현, 신상완, 정병헌의 2명 등 7명이 참여하였다. 한용운은 중앙학림의 학생들에게 조선독립선언서를 내보이면서, “이것은 우리가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인쇄한 선언서이니 너희들은 독립선언서를 시중에 배부”하기를 부탁하였다. 한용운은 ‘서산, 사명의 범손임을 기억하여 불교청년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부탁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중앙학림 승려들에게 전달하였다. 유심사에서 한용운을 만난 뒤 중앙학림 승려들은 인근의 범어사 포교당에서 후속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탑골공원 만세독립운동 참가, 선언서 배포, 시위 후 연고 사찰로 가서 지방 사찰의 만세운동 확산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중앙학림의 승려로 3·1만세운동에 참가한 윤학조는 고향인 달성군 공산면에 소재한 동화사 지방학림의 승려들로 하여금 만세운동을 전개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윤학조가 중앙학림의 3·1운동에의 참여와 지방학림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 및 탑골공원 만세독립운동 참여 이후 한 달 간의 움직임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김대용과 권청학 등은 합천 해인사에서 지방학림 승려들과 함께 만세독립운동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대용은 대구와

34) 김광식, 앞의 글, p.76. ; 『매일신보』 1920년 9월 25일, 「손병희 외 47인 공수불수리 사건」.

35) 김동윤, 앞의 글, p.100.

동화사를 맡았고, 권청학은 달성과 영천을 맡았다고 한다.³⁶⁾ 그런데 이에 대한 증거가 동화사 지방학림 만세독립운동의 판결문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권청학의 경우 동화사 지방학림 소속 학생이자 승려인 것으로 동화사 지방학림 만세운동 판결문에 언급된 바 해인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화사 이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불교계의 3·1운동이 전개된 곳은 문경 김룡사이다. 김룡사의 지방학림 곧 경흥학림 소속 승려 30명이 만세독립운동에 연루되었고, 그 가운데 3명이 기소되어 집행유예 1년을 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³⁷⁾

2.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불교중앙학교(佛敎中央學校)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3월 1일 서울 과고다 공원에서 전개된 만세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고향인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 진인동(眞仁洞)으로 내려왔다.³⁸⁾ 중앙학림에서 만세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만세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한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더욱이 공산면에는 30본산 중의 하나인 동화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고, 동화사에는 자신처럼 젊은 수행승이 배우고 익히는 지방학림이 운영되고 있었다.

동화사 지방학림에 재학 중인 학생 규모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914년 2월에 발행된 『해동불교』 제4호에 실린 ‘본산 말사별 학생수 일람’과 1918년 1월의 『조선불교총보』의 ‘삼십본산부(三十本山付) 말사승니급 학생, 신도수조(信徒數調)’를 들 수 있다. 특히, 『조선불교총보』에 따르면 1917년 동화사 지방학림에는 3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전개될 때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동화사 지방학림에 소속되

36) 김광식, 앞의 글, p.78-79.

37) 김광식, 앞의 글, p.80.

38) 윤학조(尹學祚) 판결문, 1919년 6월 10일, 대구복심법원.

어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학조는 평소 독립에 대해 가진 생각을 재판 과정에서 가감 없이 표현하였다. 곧 “본인은 조선 민족이니 조선 민족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조선독립을 축하하는 성의로 조선의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라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조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일병합 후는 동일한 민족이다. 만약 동일한 민족이라고 하면 피아의 구별은 조금도 없는 것이 이치인데, 우선 초미의 급선무인 교육의 1조를 보아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사상이 발전하고 지식이 진보할 수 있는 서적은 전부 엄금하고 학문의 지식을 충분히 양성할 수 없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 학생인 자의 일대 불안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면하기 위해 독립만세를 부름은 ….

곧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우민화’에 불안을 느낀 것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배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1조’란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을 언급한 것인데, ‘제1조는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조선교육령은 한국인 학생에게 일본어 보급을 통한 충량한 신민 양성과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실업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³⁹⁾ 그러므로 윤학조는 학생으로서 조선교육령이 가진 식민지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조선교육령의 부당한 점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학조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 아래 1919년 3월 23일 공산면 도학동(道鶴洞)에 있는 동화사(桐華寺)의 지방학림(地方學林)을 찾았다. 그 가운데 우선 지방학림 소속 승려 권청학(權淸學), 김임도(金任道), 김문옥(金文玉) 등을 만났다. 권청학은 달성군 유가면 출신이고,

39) 이종범·최원규, 『자료 한국근현대사 입문』, 해안, 1995, pp.205-207.

김문옥은 군위 효령면 출신이었다. 동화사 지방학림 승려들을 만난 윤학조는 서울과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3·1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학생들이 쫓기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윤학조는 기독교, 천도교의 3·1만세운동과 각 학생들의 3·1운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동화사 지방학림이 종교 차원에서 운영되는 동시에 학생들로 구성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학림의 학생들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윤학조는 지방학림 학생들에게 “너희들 지방학림 생도도 역시 이를 본떠 동일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며 만세독립운동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윤학조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따른 만세독립운동 권유에 대해 동화사 지방학림 학생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독립과 만세운동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모두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함은 당연한 본무이다. 조선 독립 일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만세를 부른 것이다.

학림 승려들은 공산면에서 열리고 있던 백안시장(百安市場)에서 군중들을 선동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백안시장의 만세시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윤학조의 의견에 따라 시위 장소를 대구의 덕산정 시장으로 옮길 것을 결의하였다. 만세독립운동의 장소 변경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장을 찾는 사람들의 규모였다. 곧 공산면은 산간이라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을 찾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만세독립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덕산정 시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19년 3월 10일 2차 대구 만세독립운동이 전개된 장소였다. 또한 덕산정 시장은 동화사 대구 출장소인 보현사와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덕산정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거나와 만세독립운동이 한 차례 전개된 바 있었기에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 장소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1919년 3월 28일 김문옥·권청학은 학림 승려들을 동화사(桐華寺) 내 심검당(尋劍堂)에 집결시켰다. 심검당은 조선시대 선조 38년(1605)에 지어져 동화사 내에서 참선을 하는 선원, 강설용의 강원으로 사용된 공간이다. 동화사에서 심검당은 대웅전과 서별당 사이, 범화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불교에서 심검당이라는 건물은 지혜를 칼을 찾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심검’이란 무명(無明)의 싹을 잘라 부처의 혜명(慧明)을 증득(證得)하게 하는 칼을 의미한다. 심검의 다른 이름인 취모리검(吹毛利劍)은 가느다란 머리카락에 칼날을 대고 입김으로 불어도 잘릴 만큼 날카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불교 사찰의 구성에서 심검당은 수행의 주요 공간이다. 수행하는 승려들만의 공간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지혜의 칼을 찾는 심검당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찾는 ‘지혜의 검’이 되길 바래서일까.

학림 승려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문옥은 “신문 기사를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내 각지에서는 벌써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들도 조선민족의 일원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세운동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학림 승려들은 김문옥의 주장에 ‘기쁜 일’로 적극 동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3월 30일 대구 덕산정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렇다면 3월 30일을 만세독립운동의 날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덕산정에 위치한 동문시장은 4일과 9일에 열리는 시장이었다. 서문시장은 2일과 7일에 개시되는 시장이었다. 양력 3월 30일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2월 29일이니 장이 열리는 날이었던 것이다. 또 양력 3월 30일은 일요일이었다. 이처럼 3월 30일은 휴일인 일요일에다 장날이니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날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1919년 3월 29일, 동화사 지방학림 승려들은 종이로 만든 태극기 등 시위 물품을 감춘 채 동화사를 떠나 대구로 출발하였다. 동화사 출장소

혹은 보현사에는 김상의(金尙儀)가 일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보현사에 도착한 만세독립운동 참여자 일동은 김상의를 만난 뒤 면직물로 된 흰 천을 이용해서 한 폭 크기의 태극기를 다시 만들었다.

1919년 3월 30일 새 날이 밝아오자 동화사 지방학림 승려들은 시위준비를 확인한 다음, 오후 2시 무렵 덕산정 시장에 도착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인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장의 한 복판에서 면직물로 만든 태극기를 앞세우고, 동화사에서 만든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판결문에는 2,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군집한 인파 속을 헤치면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던 것이다. 갑작스런 만세 함성에 놀란 군중들 역시 일제히 호응하였다. 이어 학림 승려들을 선두로 하는 군중 시위대가 시장을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되자 급보를 받은 일본 군인과 경찰이 달려 왔다. 이들은 군중을 총검으로 위협하여 해산시키고 동화사 지방학림 승려 전원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학림 승려들은 다음과 같다.

이성근(李成根) · 김문옥(金文玉) · 이보식(李普湜) · 김종만(金鍾萬) · 박창호(朴昌鎬) · 김윤섭(金潤燮) · 허선일(許善一) · 이기윤(李起胤) · 권청학(權淸學)

이들 9명은 1919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일제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같은 해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으로 다시 징역 10개월을 언도받았다. 또한 복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월 3일 상고 기각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1919년 3월 30일 덕산정 시장에서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한 동화사 지방학림의 소속 승려들은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⁴⁰⁾ 이때 9명의 연령은 19세에서부터

40) 이성근(李成根) 외 8인의 판결문, 1919년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

23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청년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 19세는 이성근, 박창호 등 2명이며, 20세는 김문옥, 김윤섭, 이보식 등 3명이며, 21세는 김종만, 이기윤, 권정학 등 3명이었다. 허선일이 23세로 연령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1919년 3월 30일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시장 만세독립운동의 계기를 만든 윤학조는 나중에 일경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윤학조는 1919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언도받았다. 같은해 6월 10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역시 징역 10월을 언도받았으나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1919년 7월 19일 상고 기각 처분을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따라서 동화사 지방학림 만세독립운동으로 인해 투옥되는 고초를 겪은 인물들은 모두 10명이었다.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독립에 대한 인식과 일제의 조선지배의 부당성을 가감 없이 천명하였고, 만세독립운동을 ‘기쁜 일’로 간주하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로써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시장 만세독립운동은 대구지역 독립운동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전체 3·1만세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더욱이 동화사 지방학림의 젊은 승려들이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두려움 없이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은 3·1운동을 전민족적 항일운동으로 더욱 확대시킨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3. 동화사 지방학림 3·1운동의 현재 : 덕산정 동문시장과 국가보훈

2019년은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이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 해이다. 그에 따라 이 만세운동을 현재적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만세독립운동의 현장인 덕산정 시장을 먼저 살펴본 다음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이 펼쳐졌던 덕산정 시장의 위치는 어디일까.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에는 남문밖 시장에서, 『대구시사』(1995)에서는 남문시장에서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⁴¹⁾ 이후 대구에서는 덕산정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체로 남문밖 시장 또는 남문시장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 중 윤학조의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 판결문에서는 대구부 덕산정 동문시장으로 장소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성근 외 8인에 대한 대구 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덕산정 시장으로 장소를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덕산정 동문시장, 덕산정 시장, 남문시장 등 3장소는 같은 곳일까. 우선, 덕산정시장과 남문시장은 분명 다르다. 대구부 읍지에 따르면, 서문시장을 읍시(邑市)라 하고, 동문시장을 신시(新市)라고 하였다. 동문시장은 서문시장이 서문밖에 있었듯이, 동문시장은 동문 밖에 있었을 터. 남문시장에 대한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대구부 읍지』에 나타나듯 남문 밖에 있는 시장을 동문 일원으로 옮기면서 동문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사』(1973)에 따르면 이때는 1911년이라 한다. 둘째, 1937년 3월에 동문시장을 이전해 새로 개설한 시장이다. 오늘날 남문시장 일원이다. 이에 따르면, 덕산정 시장은 적어도 남문시장과 연관이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덕산정 시장과 덕산정 동문시장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덕산정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덕산정에 있었던 시장이 덕산정 시장인지 덕산동 동문시장인지를 판별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앞선 『대구시사』(1973)에 따르면 동문 부근에 개설된 동문시장의 일부가 1917년 8월 덕산정으로 옮기고, 1919년 7월에 또다시 덕산정으로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덕산정 시장은 덕산정 동문시장이 되는

41) 광복회대구경북연합지부,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 1991, p.112.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1, p.1045.

것이다. 따라서 윤학조의 판결문이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 장소로 정확히 적시된 것이고, 이성근 외 8명에 대한 판결문은 ‘동문’이 생략된 표현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덕산정 동문시장의 위치는 어디일까. 덕산정의 위치는 1919년 당시와 지금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옛 대구읍성 남문과 보현사 사이에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1919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가 여러 차례 확장 개발되면서, 덕산정의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런데 동문시장이 남산동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은 대구부가 동문시장을 관통하는 새로운 12칸 도로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 도로개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3·1운동 장소로서 덕산정 동문시장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학림 학생들이 머물면서 태극기를 만든 보현사에서 현재 덕산시장(염매시장 부근) 일원을 만세독립운동의 현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화사 만세독립운동 관련 독립유공자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화사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으로 재판을 투옥된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세 명만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세 명의 포상 년도는 다르지만 모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국가유공자 포상 등급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대통령 표창 순이다.

<표 1> 동화사 지방학림 3·1만세독립운동 포상자

이름	나이	생몰년	포상 연도	포상 등급	주소
김문옥	20	1898 ~ 1957	1990	애족장	대구 칠성동
권정학	21	1899 ~ 1981	2007	애족장	달성 유가면
이기윤	21	1898 ~ 1938	1992	애족장	청도 풍각 치산동

다수에 해당하는 윤학조, 이성근, 김종만, 김윤섭, 박창호, 허선일, 이보식 7명은 만세독립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와 관련된 판결문이 존재하면서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해서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 이는 3명의 포상시기가 각각인 것과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역사의 후손들인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한 위업을 방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래한 일일 것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상식적 수준에서 잘 알려진 동화사 지방학림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 주도자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동화사 지방학림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 주도자들이 초대받을 수 있도록 불교계, 시민사회, 국가보훈처 등의 협력 아래 아낌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화사 지방학림 덕산동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의 유적지 작업이 필요하다. 3월 30일 만세독립운동이 결의되었던 동화사 심검당, 태극기를 만들었던 보현사, 만세독립운동이 펼쳐졌던 덕산정 동문시장 등 세 곳이 우선적으로 유적지로 개발 관리되어 역사적 의미를 새겨 나갈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1919년 3월 30일에 전개된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동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만세독립운동은 공산면 아래 해안면의 일본인 침탈 등을 통해 식민지로 전락한 현실을 인지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3·1운동 뿐 아니라 3월 상순 대구의 만세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준비되고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의 독

립을 ‘당연한 본부’로 간주하고, 만세독립운동에 대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만세를 부른’ 것으로 이해하면서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이 3·1운동을 ‘동화사 지방학림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이 만세독립운동은 지역의 3·1운동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3·1운동이 전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불교계에 의해 전개된 만세독립운동으로 민족운동에서 불교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동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은 대구의 3·1운동에서 3월 8일 서문시장, 3월 10일 동문시장 시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개된 시위로서 뒤이어 펼쳐진 4월 15일 대명동 만세시위, 4월 26일 팔공산 미대동 만세시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비밀결사 혜성단이 결성되어 활동한 것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곧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은 대구의 3·1운동의 중간 시점에 발생하여 대구의 3·1운동을 증폭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은 일제강점 이후 불교계가 어용화 및 친일화에 경도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동화사 주지의 친일화 경향에 대한 불교계의 자기 성찰적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곧 동화사 지방학림의 만세독립운동은 불교계 역시 식민지 민족운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 행동이었던 것이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할 때, 만세독립운동이 현장을 현재 보현사에서 대구읍성 남문 앞까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덕산정 시장의 위치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을 제고하거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장소의 변동성을 고려한 위치 비정이다. 이와 관련해 3월 30일 만세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화사 지방학림 승려들이 전개한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의 유적지 작업이 요구된다. 동화사의 심검당, 보현사, 덕산동 동문시장 등 세 곳이 우선적 장소이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을 주도한 10명 중 7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비적 순간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교계, 시민사회, 국가보훈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독립을 위한 노력이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화사 지방학림의 덕산정 동문시장 만세독립운동 이후 1920년대에 대구에는 대구불교청년회가 결성되어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곧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 향후에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민족운동 연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능화, 『朝鮮佛敎通史』上, 서울 신문관, 1918,
 관련 판결문(대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 형사부)
 이병헌, 『3.운동 비사』, 시사시보출판판국, 1959.
 정로용, 『백산실기』, 1918.
 동아일보사,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暴徒史編輯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 제3권), 1971.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2, 1973.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 1991.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32, 독립군자금모집1, 1997.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09.
 대통령소속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009.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19.
 한동민,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 연구 동향과 과제」, 『선문화연구』, 창간호,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3·1운동의 지방 확산과정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 1983.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 민족해방운동사연구』, 청년사, 1989.
 박연수, 「경북지방의 3·1운동」,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임정석, 「3·1운동 전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4, 2000.
 김일수, 『서상일의 정치·경제 이념과 활동』,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1.
 류시현,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 -시간, 장소 그리고 ‘민족/민중」, 『역사와 현실』 74, 2009.
 김일수, 「1910년대 달성친목회의 민족운동」, 『한국학논집』 45, 2011.
 _____, 「대한제국 군인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재룡」,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 대구문화재단·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이윤갑, 「대구지역의 한말 일제초기 사회변동과 3·1운동」, 『계명사학』 17,

2006.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동아일보>, <매일신보>, <영남일보>

Abstract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which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Gather

Kim, Il-su
(Professor, Kyung-woon Univ.)

On March 30, 1919,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Dongmoon Market of Deoksandong district of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on March 30, 1919 spread the Daegu's 3·1 movement into a new phase. In addition, the 3·1 movemen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ll the national resistance.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occurred at the middle point of Daegu's 3·1 movement and it can be highly regarded as the bridge that amplifies Daegu's 3·1 movement. In particular, it strengthened the role and meaning of Buddhism in the national movement.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expressed the reflection of the Buddhist system about the trend of pro-Japanese of Buddhism and the of chief Buddhist monk of Donghwa Buddhist Temple after the strength of Japanese rule.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was the practical act to recognize that the Buddhist world was also the subject of the colonial national movement.

Key words

Korea-Japan Annexatio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e local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onghwa Buddhist Temple, Dongmoon Market, Bohyeon Dongmoon Market, Singeomdang Hall(Place where monks sit in the temple,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Dongmoon Market.